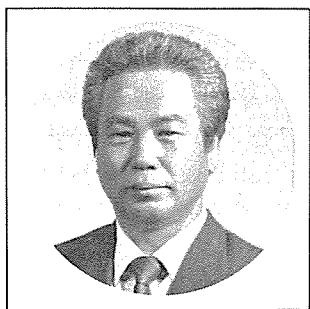


“최첨단 科學技術산업개발에 집중해야”



金昌植

(韓國科學教育學會 회장)

과학기술의 진흥이 국민을 잘 살게하는 경제발전의 원천이라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하며 그것이 경제활동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쉽사리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세계 기술선진국과의 경쟁을 같이해야 한다는 하이테크산업 보다는 금형기술이나 가공기술 또는 디자인분야에 당분간 중점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혀 경제안정을 구축한 다음 하이테크산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주장이 다같이 장단점은 있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무력전쟁의 기미가 없어지는 대신 이보다 가공할 경제전쟁이 치열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

경제전쟁은 모방이 불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독점 판매하는 일을 말하며, 이는 제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부품일 수도 있다.

오늘날 일본이 엔고의 타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국제수지를 흑자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첨단 과학기술산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날로 치솟는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유망한 몇종류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선진국과 경쟁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횡포에 굴복하여 거액의 로얄티를 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발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과학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정부의 주도로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와 기업이나 연구단체들이 개발해야 할 분야를 선별하여 강력한 행정력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앓될 것으로 믿고 기민한 정책의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